

청렴 나침반

내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엔 바보 아저씨가 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바보래요, 바보래요.”

철없는 동네 아이들이 졸졸 쫓아다니며 놀려도 허허 사람 좋은 웃음만 짓는 아저씨. 머리는 까치집에 언제 빨랐는지 쿼쿼한 냄새가 나는 낡은 잠바를 입고 온 동네를 쏘다닌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했나, 오토바이를 몰다 전봇대에 부딪쳤다고 했나. 눈치가 없고, 말이 느리고, 셈도 느린 아저씨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동네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다.

사람들은 요령은 없지만 께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아저씨를 기특하게 여겨 넉넉히 품삯을 챙겨 줬다. 말하자면 철수 아저씨는 마을 공동체가 다 함께 돌보는 존재였다.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 집.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날 부른다.

“딸, 철수 아저씨 말이야.....”

‘철수 아저씨?’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나는 철수 아저씨가 항상 거북했다. 께죄죄한 차림새에 몸에서 냄새가 나고, 말도 어눌해서 무섭고 싫었다. 멀리서 아저씨 그림자만 보여도 멀리 돌아갈 정도였다.

“철수 아저씨가 이제 나이 들어서 몸 쓰는 일 하기도 힘들고, 너무 딱하지 뭐니. 얼마 전에 면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모양이야. 수급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팍팍하게 사는 철수 아저씨가 못내 신경이 쓰여 사회 복지 공무원인 나에게 말을 꺼낸 것이다.

“엄마, 수급자 되기가 쉬운 줄 알아? 소득, 재산이 없는 건 기본에 부양의무자도 확인하고, 자동차도 없어야 해. 어려워 보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아저씨 집도 자가고 오래되긴 했지만,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있잖아.”

“뉘야 빠진 고물 자동차도 재산으로 본다고? 그 차 팔라고 해야겠다. 우리 딸이 철수 아저씨 설득 좀 해줘.”

어머니의 오지랖에 결국 철수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 면사무소에도 확인을 해보니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자 탈락을 한 것이 맞았다. 고집 센 아저씨를 겨우 설득해 차를 팔았고, 다음 달 아저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뿌듯했다. 어리숙하다 못해 바보처럼 보이는 아저씨. 뚜렷한 직업도 없이 날품팔이하면서 가족도 없이 혼자 고생하며 지내는 아저씨를 도왔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공무원인 우리 딸 덕분에 철수 아저씨가 수급자가 되었다며 은근히 자랑하는 어머니의 한껏 올라간 어깨를 보는 것도, 연신 고개를 꾸벅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아저씨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좋았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데는 한 달

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사는 게 팍팍한지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용돈도 받지 못해 어렵게 지낸다는 고모할머니, 공사판에서 다리를 다치고 술에 절어 폐인처럼 지낸다는 아무개 아저씨,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주머니 등이 저마다 철수 아저씨처럼 본인을 수급자로 만들어 달라고 나를 찾는 게 아닌가.

면사무소 복지계에서 상담하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친척인 고모할머니까지 외면할 수 없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서 자리를 잡았고, 몇 해 전 고모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은 터였다. 일흔이 훌쩍 넘은 할머니는 당숙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는데, 당숙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용돈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노구를 이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섰지만, 들이는 노동에 비해 버는 돈은 턱없이 적었고, 오히려 병원비가 더 나오는 지경이었다.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다. 불 꺼진 방에 물먹은 솜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고모할머니를 그 누가 모르는 체할 수 있으랴.

“할머니, 당숙은 얼마나 자주 댁에 들르나요? 전화는 많이 해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거지. 먹고살기 바빠서 가끔 통화만 해.”

“용돈은 받으세요?”

“몇 달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보내 줘.”

당숙이 돈을 버는 한 고모할머니는 절대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할머니, 잘 들으세요. 수급자가 되려면 당숙이랑 연락하면 안 돼요.”

“뭐라고! 아들이랑 통화도 못 해?”

“가족 관계 단절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수급자가 될 때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말고, 용돈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고모할머니는 내 말대로 당숙과 연락을 끊고 살았고, 몇 달 후 네 덕분에 수급자가 되었다며 어머니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철수 아저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명치가 꼭 막힌 것이 체한 것처럼 속이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다.

‘고모할머니와 당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거야!’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면서 친척들이 우회적으로 법을 어기도록 도와주다니. 내가 부정 수급자들을 조사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가족 관계 단절이라는 방법을 알려줘서 부정 수급자를 만들었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비난받는 꿈, 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악몽을 꾸기 일쑤였다. 고향 집에 갈 때마다 고모할머니에게 인사드리던 것도 불편한 마음에 피해 다녔다. 내 허물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느라 볼이 움푹 파일 정도로 살까지 빠졌다.

올해 설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 몇 년 만에 당숙이 인사를 왔다. 내 선물이라며 값비싼 가방을 손에 들고.

“당숙, 웬 선물이에요?”

뜻밖의 선물을 받고 어리둥절한 나에게 당숙이 대답했다.

“내가 어려울 때, 네 덕분에 어머니 용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고 직원 월급이 밀릴 때는 눈앞이 정말 캄캄했지. 이젠 사업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 이건 내 성의로 알고 받아 주렴.”

“당숙,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숙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이야기했다. 가방을 받으면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선물은 거절했다. 당숙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한참을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다가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다.

다음 날 당숙에게서 걸려온 전화.

“조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 큰 빚을 졌네. 면사무소에 가서 지금까지 받은 수급비를 반납하는 건 어떨까. 수급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양심을 지켜야지.”

당숙은 정말로 설 연휴가 끝나고 면사무소에 가서 고모할머니가 받은 수급비를 반납했고, 수급자 자격도 철회했다. 가방을 환불하고 받은 돈은 내 이름으로 면사무소 복지계에 기부했다. 당숙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공직자로서 일하다 보면 유혹에 흔들릴 때가 생긴다. 법을 알고 정책을 잘 알다 보니

그 테두리 안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나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때
마다 당숙에게 건네받은 내 이름이 적힌 기부금 영수증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위의
사건은 내 공직 생활의 방향을 알려 주는 청렴 나침반이 되었다.